

개발의 역사

시코츠토우야 국립공원의 주변은 예전부터 아이누의 생활터전이었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홋카이도 남부에 진출한 마쓰마에항(松前藩)이 시코츠호 주변의 치토세(千歳), 우스有珠(有珠), 아부타(虻田) 등에 아이누와의 교역거점을 설치하였다.

홋카이도 개발이 본격적으로는 시작된 것은 19 세기 후반 메이지정부가 탄생한 때부터이다.

이 점에서 홋카이도는 혼슈(本州) 이남과는 크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



쇼우와(昭和) 초기의 토우야(洞爺) 호반 풍경

마쓰우라 다케시로우(松浦武四郎) 기념관 제공(그림, 사진)

칼럼 ①

마쓰우라 다케시로의 시코츠호 발견

시코츠호를 답사하여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것은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 1818~1888)이다. 마쓰우라 다케시로는 에도시대 말기에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조사에 활약한 탐험가로 1857~58년에 막부의 동서하이산천취조어용「東西蝦夷山川取調御用」에 홋카이도 내륙부의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다. 시코츠호(支笏湖)에 대해서는 1857년에 현지 아이누의 가이드에 의해 치토세시(千歳市)에서 치토세강을 따라 산을 넘어 호반에 도달했던 것이 「유우바리(夕張)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메이지정부 성립 후, 다케시로는 개척판관에 임명되어 홋카이도의 이름과 국(國)·군(郡) 명을 선정하였다.



19세기 중엽. 마쓰우라 다케시로우(松浦武四郎)가 작성한 동서하이산천지리취조도(東西蝦夷山川地理取調図)(부분)
중앙은 시코츠호(支笏湖)

이 지방의 개척은, 해안가의 평지로부터 시작되었다. 1886년 홋카이도를 통괄하는 홋카이도청이 삿포로에 설치됨에 따라 토우야호를 통과하는 하코다테(函館)와 삿포로(札幌)를 연결하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1887년에는 카가와현(香川県)에서 76명이 현재의 타카라다(財田) 지구로 이주하는 등 호안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였다.

토우야(洞爺) 호반의 관광사업에 길이 열린 것은 타이쇼우(大正) 시대 초기에 온천이 발견되고, 말기에는 이 지방을 통과하는 하코다테와 삿포로를 연결하는 국철 무로란(室蘭) 본선과 치토세(千歳) 선이 개통된 때부터이다. 1929년에는 아부타(虻田; 현 JR 토우야) 역에서 토우야 호반까지 철도(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폐지)가 개통되어 호텔과 골프장 등이 진출했다.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후보에 올랐지만, 아칸(阿寒)과 다이세츠산(大雪山)이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삿포로에 가까운 이용성이 높아 평가되어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고도 경제 성장기의 관광여행 붐과 함께 토우야 호반은 관광지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4년경의 토우야(洞爺) 호반 친코섬(珍古島) 부근

칼럼 ②

에니와산(恵庭岳) 올림픽경기장 철거지의 자연복원

1972년에 개최된 삿포로 동계 올림픽에서 에니와산(恵庭岳)은 스키활 강경기장으로 개발되었다. 코스설정을 위해 국립공원의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 후에 시설을 철거하고, 식수를 하여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 길이 2km 정도의 남녀코스 외, 로우프웨이와 건물 등이 건설되었다. 경기 종료 후 곧바로 원상회복작업이 시작되어, 1974년까지 시설의 철거, 식수와 함께 급사면의 치산공사도 실시되었다. 또한, 그 후에도 긴 시간에 걸쳐 유지를 위한 작업이 행해졌다. 현재, 코스의 흔적은 많이 희미해져 있지만, 식재된 수목은 주변의 나무들에 비하면 아직 작은 수준이다.



삿포로(札幌) 동계올림픽 당시의 에니와산(恵庭岳) 활강코스
홋카이도(北海道) 신문사 제공



예전의 비후에금산(美笛金山)의 전용철도(1926~1951년 까지 운행)

삼림, 광산개발과 국립공원

자연성 높은 삼림이 남아 있는 시코츠호 주변 이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광산 개발등의 산업 활동을 해온 역사가 있다. 국토가 좁은 일본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광업, 발전 등 산업과의 조정이 큰 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국립공원 제도는 창설 당시부터 여러가지 산업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주)오지제지는 토마코마이(苦小牧)에 공장을 건설하고, 1908년에 토마코마이에서 시코츠(支笏) 호반까지 철도(山線)를 건설하며, 치토세강에 발전소를 만들고 시코츠호 주변의 삼림을 벌채하였다. 또한, 광산의 개발도 번성하고, 시코츠 호반의 비후에카나야마(美笛金山), 노보리베츠시의 호로베츠(幌別) 광산 등 공원구역 안팎으로 몇 개의 광산이 개발되어 일부는 공원지정 후에까지 조업을 해왔다. 현재는 공원 내 광산은 모두 폐지되고, 당시 건설된 철교 등은 산업유물로서 공원 경관의 일부가 되고 있다.



치토세시(千歳市)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산센(山線) 철교